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72호

2025년 10월 26일(다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 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			



오늘의 미사

연중 제30주일

▶ 1독서 : 집회서 35,15ㄴ-17.20-22ㄴ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말기셨네. ◎
▶ 화답송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2독서 : 티모테오 2서 4,6-8.16-18	▶ 복음 : 루카 18,9-14

① 11월 16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11월 16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④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⑤ 사제연수 관계로 11월 18일~21일까지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⑥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1월 16일~22일)

⑦ 매월 넷째 주 11월 30일(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헌'

⑧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삼위일체이신 주님

시간: 10월 26일(일) 오전 9시, 장소: 새신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② 영어교리 신청 공지

시간: 매주 (토) 오후 5시~6시 장소: 새신자 교리실

대상: 외국인 배우자 또는 대학생 이상의 세례, 견진 대상자

문의: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마감: 11월 1일)



구역 및 단체

①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10월 26(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② 소공동체 구역장 모임

일시: 10월 26(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③ 성모회 모임

일시: 10월 26(일) 교중미사 후

장소: 오하나센터 키친

④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10월 26일(일) 오후 6시

문의: 김정남 글라라 349-2654

⑤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11월 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⑥ 카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11월 9일(일) 오후 5시

문의: 황성자 마리아 220-0822

※ 성당 창고 정리 실시

일시: 11월 1일(토) 오전 9시

성당 창고 정리를 실시합니다. 봉사해 주실 분을 초대합니다.

※ '기도' 에 대한 특강 안내

일시: 11월 9일(일) 교중미사 후

집전: 김다울 클레멘스 신부님 (시애틀 성 김대건 성당 주임)

신청: 각 미사예물 접수처

담당: 교육분과



헌금

10월 25/26일 World Mission Sunday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0월 18/19일 : \$4,976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275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2,996	\$1,940	-	\$40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미사 : 보편교회에서 중요시하는 미사의 요소 - 공동체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전례헌장 26항).”

전례헌장 26항에 의하면, 거룩한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식을 거행함을 전례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보편교회가 제시하는 예식대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공적으로 기도한다는 차원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점은 미사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공적으로 바치는 예배인 미사는 결코 개인적인 기도나 사적인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단체에 의해 규정될 수 없고, 교회의 각 지체가 유기적인 협력과 일치하며 거행할 때 합당한 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교회에서 중요시하는 미사의 요소 중에 “공동체”라는 차원은 다음과 같은 교리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모든 전례 거행”은 온전한 그리스도,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의 행위, 다시 말해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전례헌장 7항)을 전례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함으로써 공동체의 전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아드립니다

“성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그 머리와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가 거행하는 것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40항). 그러므로 성사를 거행할 때 온 회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되어’ 각자의 임무에 따라 ‘전례 거행자’가 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44항).”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미사가 사제에게만 유보된 전유물로 보기 쉽지만, 이는 결코 아닙니다. 사제 중심적인 축제가 아닌, 하느님의 백성이 중심이 되어 찬미를 올리는 축제가 바로 미사입니다. 또 이 말을 달리 해석하자면, 그 어떤 누구나 그 어떤 집단이나 결코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점(전례헌장 22항 참조)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사의 완전한 주체는 언제나 교회이고, 하느님의 백성이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일치하며 공적으로 바치는 예배 행위가 곧 미사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지향으로 우리들의 미사를 봉헌하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보편교회에서 중요시하는 미사의 요소 - 능동적 참여”라는 주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 연중 제30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 우리는 집회서와 루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진정성과 겸손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두 말씀은 서로 다른 시대와 맥락에서 쓰였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전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외적인 형식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은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를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강한 자나 의로운 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부르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느님은 겉모습이나 명성을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겸손을 보십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바리사이는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임을 자랑하며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는 사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진실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진실하게 하느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잘하거나,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고 겸손한지가 중요합니다.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의 귀에 닿는 기도가 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 자비를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순간 바리사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비를 구하며,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세리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 미사 중, 우리 모두 세리처럼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고, 그 자비를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